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6호 【루계 제25064호】 주체104(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의 앙양된 열의속에 우리는 당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진행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진군로를 밝혀주신데 이어 승리의 경축광장에서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이 세찬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기념비들과 영웅신화들, 전화위복의 기적들에 의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이 더욱 뜻깊게 장식되였다.

세계인민들도 우리의 당창건기념일을 인류공동의 축전으로 맞이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수많은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축행사들은 정치적의의에 있어서나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를 이루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것은 조선의 더없는 영광이며 최후승리를 기약해주는 의의깊은 사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올해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당창건 70돐을 향하여 총돌격해왔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이날을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는것은 세계앞에 선언한 우리의 투쟁목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10월의 명절을 세상이 보란듯이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온갖 적대세력들이 각방으로 도전해나서고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까지 치달은 최악의 사태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끝내 오늘의 쾌승을 안아왔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거대한 혁명업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과 창창한 전도가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게 되였다.

당창건 70돐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만천하에 과시한 영광의 대축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한 수령의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민,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키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이 실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반제투쟁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위대한 당이 우리 당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의 총화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힘있게 확증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이 당창건 일흔돐을 계기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뚜렷이 밝히였다. 대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1만명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과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의 경축공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국가미술전람회,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 조선우표전시회들에 판통된것도 우리 당의 위업은 가장 성스럽고 위대하며 당의 령도는 백전백승의 기치라는 천만군민의 굳은 확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당창건 70돐은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조선의 모습을 만방에 떨친 일심단결의 대축전이다.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령도자와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끝까지 같이해나가는 일편단심,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천만심장이 령도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신뢰심으로 불타고 천만대오가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여 천겹, 만겹의 성새를 이루고있는데 백두산대국의 제일국력이 있고 불패성의 근본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력사의 생눈길을 파감히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하고 억세 신념과 열정이 뜨겁게 분출되였다. 위대한 우리 인민, 우리 군대, 우리 청년들에 대한 불같은 믿음과 사랑이 구절구절마다에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온 나라 강산에 원수님을 우러르는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심이 세차게 굽이쳤다.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천만군민이 한목소리로 터쳐올린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의리를 간직하고 당중앙을 따라 천리라도 만리라도 하늘땅 끝까지 가고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서만 울려나올수 있는 일심단결의 환호성이다.

특히 당중앙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수령결사옹위의 전통, 단결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드팀없는 신념의 분출인양 도도히 굽이친 홰불행진대오는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운명의 피줄을 이은 선군조선의 혼연일체의 모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하다는 철리를 뚜렷이 새기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일편단심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척불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남김없이 과시한 바로 여기에 당창건 70돐이 가지는 커다란 력사적의의가 있다.

당창건 70돐은 백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영웅적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보여준 긍지높은 대축전이다.

승리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전통이며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것은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의 기상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련전련승의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으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높이 세기를 주름잡는 비약과 문명의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다.

인민의 리익실현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위대한 인민의 힘으로 모든 승리를 안아온 어머니당, 총대를 앞세우고 선군의 위력으로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천하무적의 군력을 다져놓은 선군의 당, 창당의 첫 시기부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우리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일떠세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치는 백두산대국의 참모습이 당창건 70돐을 계기로 더욱 부각되였다.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청춘대기념비로 우뚝 솟아나고 조국의 최북단 라선땅에 전화위복의 기적이 펼쳐졌으며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지축을 쩡쩡 울린 백두산혁명강군, 일당백의 최정예강군 열병대오의 무적필승의 기상은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하며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선것은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세계앞에 다시금 뚜렷이 확증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의 사상관철전의 맨 앞장에서 총돌격해나가도록 이끄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멀고 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백두청춘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하늘길, 배길을 탈려 라선시피해복구전투현장에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의 정치군사진지가 천백배로 다져졌으며 당창건 70돐을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세인을 경탄시킨 이번 10월의 경축행사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력사에 길이 빛날 대서사시적화폭이다.

이번 축전에서처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높은 존엄과 권위, 불패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진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창건 70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천출위인상을 칭송하는 력사적사변으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강대한 조선의 기상이고 높뛰는 조선의 심장이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당중앙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의 한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불같은 일념에 넘쳐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더욱 굳게 뭉쳐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이며 우리 당의 령도력이자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이다. 당창건 70돐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모시고있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인가를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는 10월의 경축광장에서 남김없이 보여준 조선의 모습, 일심단결의 모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받들어모시는 일편단심,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를 더욱 억척같이 쌓아야 한다. 10월의 대축전장마다에서 높이 울린 결사옹위, 일심단결의 함성이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마다에서 실천행동으로 맥동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는 우리 당의 승리와 영광의 70년력사가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우리는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고결한 충정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신념의 통지, 열혈의 통지가 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승리와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정치군사적위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 슬기롭고 용감무쌍한 청년대군이 있기에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당창건 70돐을 계기로 다시금 확증되였다.

우리는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정치사상진지, 반제군사진지를 천백배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공세,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상의 힘, 인민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력과 나라의 국방공업을 계속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맹렬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달고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돌격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그 어디나 청년판으로 흥성이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떨쳐나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워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당원들에게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고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피를 바쳐서라도 인민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각급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깊이 명심하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인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동지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여러 나라에서 6일과 7일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께서는 로작에서 조선로동당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화국이 조선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전민항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이 장구한 기간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전초선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여온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과학기술의 힘으로 조선을 하루빨리 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당중앙의 명령관철에 백두청춘들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가배수로 및 물길굴콩크리트타입 시작, 전반적인 대상공사 힘있게 추진

백두산칼바람에 몸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변의 침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그 본때, 그 기세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당중앙의 명령을 심장마다에 조아박고 산악같이 일떠선 전체 백두청춘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3호발전소의 언제가배수로공사장과 물길굴공사장에서 첫 콩크리트타입전투에 진입하였다. 조압수조공사장, 무넘이언제공사장에서도 청년돌격대원들의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으면서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것을 명령합니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이 준 명령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낼 애국충정의 일념을 안고 3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도 구체적인 작전을 펼쳐였다.

돌격대지휘관들은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 다시금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자력자강》이라는 구호와 표어들이 건설장의 산증력에 세워지고 《백두산영웅청춘들의 힘 무진막강하다!》,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청년강국의 영웅적투쟁신화를 창조하며 총돌격 앞으로!》와 같은 글발들을 새긴 직관판들이 전투장 곳곳에 세워졌다. 기동적으로 전개된 돌격대지휘부와 각 려단 현장방송에서 힘있게 울려퍼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온 공사장을 진감하며 백두청춘들의 전투적열의를 백배해주고있다.

10월 8일 3호발전소공사장에 현장련합지휘부의 이동참모부를 전개한 일군들은 3호발전소건설추진정형을 다시금 따져본데 기초하여 시기별에 따르는 공정계획을 비상히 높이 세웠다. 특히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10월중에 발전소건설의 선행공정인 언제가배수로와 물길굴콩크리트타입을 무조건 끝내는데 화력을 총집중하면서 전반적인 대상공사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하기에 앞서 지난 시기 1, 2호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축적된 각 려단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공사대상별시공과제를 분담함으로써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압축기, 양수기,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수송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세멘트와 강재, 연유 등 자재보장대책도 앞질러가며 세워나가고있다.

가배수로타입을 맡은 황해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3호언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다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10월초부터 철근가공과 조립, 휘틀제작전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물량이 많아진 불리한 조건을 박차고 지난 10일 아침부터 첫 타입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하루동안에 9개 구간의 바닥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였다. 이어 이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무릎까지 빠지는 물속에서 휘틀과 철근조립을 진행하며 날에날마다 가배수로벽체타입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평안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도 물길굴피복작업에서 집단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지난 시기 축적된 갱작업경험을 토대로 하여 려단의 지휘관들은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로력조직과 지휘를 신축성있게 하고있다. 지난 10월 7일 공사장에 기동전개한 즉시에 물길굴작업장까지의 근 200m에 달하는 공사도로를 새로 뽑고 타입전투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의 보장대책도 짜고들어 세워나갔다. 이러한 준비밑에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10일 새벽 물길굴피복을 위한 첫 타입전투에 달라붙어 단 이틀만에 10m이상의 상부피복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황해남도려단과 성, 중앙기관대대, 남포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무넘이언제굴착전투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불리한 지형과 공사조건으로 하여 아직 기계수단들을 투입할수 없는 조건이지만 손에손에 함마와 정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천연암반을 까내고 마대와 맞들이로 토량을 처리하며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오직 당을 따라 곧바로만 전진하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높은 정신력과 비상한 각오에 의해 공사를 시작한지 불과 며칠사이에만도 수백㎥의 암반굴착실적이 기록되였다.

조압수조공사를 맡은 자강도려단과 발전기실건설을 맡은 함경북도려단에서도 바닥가시기와 전기가설, 자재확보에 이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또 새겨가며 백두의 칼바람속에 키워온 청춘의 담력과 배짱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백암전역에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분분초초가 또다시 장엄하게 새겨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일심단결로 존엄떨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승리의 광장에서 우리 인민을 하늘높이 떠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의 선언이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위력한 우리 당,

어머니 우리 당을 진정한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천만의 철의 대오가 이 땅에 도도히 굽이쳤다.

경사로운 10월의 경축광장을 꽉 메우며 조선의 힘, 조선의 신념, 조선의 긍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철의 대오!

바로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조선로동당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장엄한 화폭이였다.

영광의 70성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따라 단결의 위력으로 백승떨쳐온 조선로동당의 력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빛내여갈 맹세가 승리의 10월과 더불어 온 나라에 더욱 강렬한 열기로 타번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심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불패의 조선로동당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전도는 앞으로도 영원히 창창할것이라는 신념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꽃바다로 설레이네 하나의 마음
홰불되여 타오르네 하나의 신념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 영원하리
…

《조선의 모습》, 이 노래는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의 힘의 비결에 대하여 온 세상에 말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우리 당이 더욱 높이 추켜든 일심단결,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에 눈물짓는 천만군민이다.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몸부림치던 12월의 피눈물언덕에서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은 그 어떤 정신적기둥에 의지하여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였던가.

혁명의 진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로 우리들을 이끌고계신다는 든든한 배심이 누구나의 가슴에 억척의 기둥으로 자리잡았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무겁고도 중요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며칠 있으면 열리게 될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려는 절절한 념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번 당대표자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는 전환적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당건설업적을 만년토대로 하여 일심단결로 백승떨치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빛발친 력사적순간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조선로동당규약》에 밝히였다.

당대표자회소식은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추켜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더욱 백배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견결히 대변하고 실현하는 어머니당으로 변함없이 건설하였기에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백전백승할수 있었다는것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중요한 70년총화이다.

영원한 어머니, 위대한 당의 품, 이 부름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더욱 마음속깊이 간직하였다.

지난 9월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은 만사람의 심금을 그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당과 국가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피해지역 인민들이 걱정되시여 머나먼 하늘길, 배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당을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진펄길도 함께 헤쳐온것처럼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이번에 진행하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도 세상에 없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는듯싶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활짝 꽃피우고 계신다.

환희의 10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정은 어머니의 정이다. 다정하고 다심하며 사려깊은 어머니, 사회주의대가정을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정과 열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덥혀주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어 인민들이 진정으로 조선로동당 만세를 부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야 한다고 늘 강조하신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흘러온 나날들에 어머니당의 정다운 목소리가 온 나라에 얼마나 뜨거이 울리였던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이 땅의 가정들과 천만자식들에게 닿게 하시려고 우리 원수님께서 이어가신 낮과 밤은 그 얼마이고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는 또 얼마였던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일군들은 언제나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돌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모든 일군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조직하거나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그것이 일심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심중히 대하고 처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전당에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당사업을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데로 지향시켜나가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람들속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생활상애로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뜨거운 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인민들이 당의 품을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을 아실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로 기뻐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어느 한 단위의 당일군은 나이가 많지만 늘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생활상 애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타일러주군 하였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당일군을 친근하게 부르며 따랐으며 그와 함께 계속 일할수 있게 해달라고 당중앙위원회에까지 제기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만나실 때마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당과 인민을 뜨거운 혈맥으로 더 굳건히 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월이 되는 뜻깊은 날인 12월 30일에 있은 일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이날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는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최상최대의 크나큰 믿음이였고 사랑이였다.

위성발사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더없이 기쁘시였다.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운 그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였고 앞으로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 애국자가 되여 조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믿음직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시는 기대이고 격려였다.

위성발사자들만이 아닌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건설자,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뜻깊은 올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전투비행사들, 경비행기개발과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도 당중앙위원회청사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축복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았다.

어찌 그들만이라고 하랴.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굽이친 감격적인 화폭들을 보며 온 나라 천만군민모두가 자기 가정의 경사처럼 울고웃으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혁명의 한길에서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있어 천만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일심단결의 대오가 끝없이 이 땅우에 굽이쳤것이라고.

10월의 뜻깊은 광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연설내용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졌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고,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자신의 영원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믿어주시며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혁명의 한길을 함께 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일편단심을 낳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음을 우리 당의 력사는 감동깊이 전하여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심장을 바치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일심단결, 이것은 위대한 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투쟁속도를 절대로 지연시키지 못할것이다.

이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사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홍철 외무성부상, 판게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키우시여

장장 70년에 달하는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자기의 갈피에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을 아로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시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한 혁명대오의 정예화가 실현되고 군민대단결이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였다.

당의 위업을 받드는 억척의 지지점

두해전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력사적인 로작에서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군대의 총적방향은 오직 하나 우리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가는것이다. 우리의 총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한다. …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갈 투철한 신념을 새겨준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군사적지반이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안아온 승리

우리 당은 지난 수십년동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선군의 위력으로 적들의 계속되는 침략적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도,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긍지높은 우리 조국의 존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위업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 8월 우리 조국땅에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천만한 사태는 제때에 평정될수 있었고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이 구원될수 있었다.

하기에 천만군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선군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신념과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은것 아니던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위협공갈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무참히 란도질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은것은 우리가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과 에스빠냐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라보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각하

나는 적도기네독립 4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0월 12일 평 양

마드리드

에스빠냐왕국 국왕

펠리뻬 6세 폐하

나는 에스빠냐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0월 12일 평 양

우리는 모두 백두산식솔

1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는 못 잊을 체험들이 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기에 우리모두가 인생의 영광을 받아안을수 있었고 행복을 누릴수 있었다. 세월의 모진 눈비도 불구름도 다 막아주고 온 나라 가정들에 따스한 해빛을 주기에 이 땅의 누구라 할것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라 정답게 부르며 그 품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당의 믿음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가 있다.》

조용히 귀기울이면 조국의 북변땅에 울리였던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는듯싶다.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같아 찾아왔다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라선시인민들은 마디마디에 사랑이 넘치는 그 말씀을 전해듣고 울었다. 온 나라가 기쁨속에 흥성일 경사로운 10월명절이 다가오는데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서러움을 안고있던 그들이였다.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이 꿈같이 베풀어졌으니 어찌 그들이 어깨를 들먹이며 울지 않으랴.

라선시인민들만이 아니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직접 체험하였던 못 잊을 사연들을 돌이켜보며 격정에 젖었다.

장재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가족들은 우리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바다날씨가 나빠 배로 못 간다면 헤염을 쳐서라도 기어이 가겠다고 하시며 끝내 작은 목선에 오르시여 날바다를 헤쳐오셨던 그날을 뜨겁게 더듬었다. 섬에 있다고 절대로 외로와하지 말라고, 여기에는 우리 당의 피줄기가 이어져있다고 하시며 다정히 손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의 두볼로 줄줄이 흘러내렸던 감격의 눈물,

하기에 그이께서 떠나실 때에는 바다에 뛰여들어 목메여 만세를 부르며 다시는 위험천만한 이곳에 절대로 오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마음속진정을 터놓은 그들이였다.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에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이렇듯 정이 통하고 열이 통하며 뜻이 통하는 광경이 펼쳐진적 있었던가.

정녕 우리 조국의 날과 달들은 인민을 그토록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이 천만의 심장으로 흘러든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창전거리 새 집에 입사한 평범한 교육자의 가정, 로동자의 가정, 신혼부부의 가정에도 우리 원수님 찾아오시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새집들이 형편을 알아보시고 따뜻이 부어주신 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친부모도 줄수 없었던 사랑을 주고주시며 새살림을 축복해주시고 이제 첫 아기를 낳으면 지나가다가 꼭 들려보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남겨주신 잊지 못할 그날 격정에 젖어, 진정에 넘쳐 어머니란 말을 눈물속에 불러보았다는것이 어찌 방직공영웅의 심정만이랴.

그렇다. 이 나라 인민들이 어머니라 정답게 부르는 그 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조선로동당의 품이다.

위대한 그 품에 피줄기를 잇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세상이 열백번 변한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충정의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운명의 한 피줄을 잇고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사회주의대가정, 백두산식솔보다 더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채히성

10월의 경축광장에 울려퍼진 당중앙의 호소따라 계속전진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 당조직들이 끓는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 빨리, 더 힘차게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무한한 흥분속에 받아안고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올해의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높은 열의로 전당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려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려는 전당의 비상한 숨결을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창건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과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도당위원회가 올해에 이룩한 성과들은 자랑할만 하다.

바싹 조여맨 신들메를 풀지 말고 이 기세로 계속 내달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것이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로부터 도당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목표들을 명백히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도안의 농촌들에서 한해농사를 마감짓기 위한 전투에 힘을 집중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생산돌격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대상공사들과 도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들이 제시되였다. 마감단계에 이른 도버섯공장 설비현대화와 백송종합식료공장 현대화공사를 빠른 기간에 결속하며 안주돼지공장과 연풍호소년단야영소 개건공사,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투계획이 작성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한천수산사업소, 장산광산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진척중에 있는 대상공사들을 제기일에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계획도 면밀히 세워졌다.

아름찬 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전투작전과 지휘를 정신이 번쩍들게 해나가고있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고있다.

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아래단위들에 직접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즉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부부장이상 일군들에게 중요대상공사들을 하나씩 맡겨주고 시, 군, 련합기업소들을 담당한 일군들이 혁신적인 일본새로 맡은 단위들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각 부서들에서 자기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이 만집을 지고 달리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도당위원회가 내세운 높은 목표들을 수행하자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당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농촌들에서 가을걷이와 남알털기를 빠른 기간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직외강연강사들로 조직된 강력한 집중강연선전대를 농촌들에 파견하는 한편 각 시, 군들에 조직된 집중강연선전대와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 시, 군기동예술선동대들도 가을걷이와 남알털기전투장들에 내보내여 집중경제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리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작전과 지도밑에 각 시, 군들에서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마련해놓은 음향증폭식메가폰들이 선전선동공세를 드세게 벌려나가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전력, 석탄, 화학, 경공업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도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탄보장단위들에 녀맹예술선동대들을 파견하여 집중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단위들을 더욱 추켜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을 중시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봄밀, 보리심기에서 단지모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소출을 훨씬 높인 평원군의 경험을 적극 소개선전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밀, 보리심기에 그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을 비롯한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을 만들어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발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주목을 돌리였다. 도일보사를 비롯한 도안의 출판보도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혁신적성과들을 거두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이 보다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각오를 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는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진취적이며 참신한 조직정치사업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에로

◇위대한 선군태양의 눈부신 빛발속에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온 세계를 뒤흔들며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10월의 대축전의 열기가 하늘땅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를 위대한 인민의 자랑스러운 력사로 총화하시며 터치신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의 메아리에 화답하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심장의 목소리, 눈물에 젖은 격정의 목소리가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의 자자구구를 심장의 피방울로, 박동으로 간직하고 우리 원수님 따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억세게 걸어갈 결사의 맹세가 이 가슴을 꽝꽝 치고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평양시당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의 심정만이라고 하겠는가.

위대한 어머니의 불보다 뜨거운 목소리에 온 나라 일군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화답해나서고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자!

바로 이것이 10월의 대축전장에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더 굳게 가다듬은 불타는 각오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이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긍지는 있어도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 앞에는 최후승리라는 최종목표가 있다. 이 원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룩한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더 높이 비약해야 한다. 지금 당에서는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바다를 항행하는 배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힘차게 내달릴것을 바라고있다.

그렇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이것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비상한 창조의지이다.

우리는 보통의 각오, 보통의 속도로가 아니라 비상한 각오, 비상한 속도로 남들이 걸은 10년, 100년을 1년, 10년으로 주름잡으며 순간의 답보도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이 땅우에 하루빨리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한다.

◇지금 우리앞에는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 그 본때로 올해의 마지막전투를 빛나게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정치사업을 야전식으로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과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 관철에서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다시한번 총폭발시켜야 한다.

기관차의 위력은 그 견인력에 있다. 당일군들은 이미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련속작전,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 만짐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폭풍치 내달려야 한다.

우리앞에는 아직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모두다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뜻깊은 올해의 마지막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총돌격 앞으로!

련속작전, 련속공격으로

룡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이것이 10월의 대축전장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른 평양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진 룡림군 일군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결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얼마나 환희로운 순간이였던가. 손에손에 당기와 꽃다발을 들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시위대오가 경축의 광장을 누벼나갈 때, 태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창공높이 새겨주며 희한한 불보라가 터져오를 때 자강도의 두메산골 룡림땅에서도 격정의 파도가 일어번졌다.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달려온 룡림군 일군들과 인민들이였다.

짧은 기간에 새로 번듯하게 일떠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우리 장군님 다녀가신 사연깊은 물놀이장의 백사장에 새롭게 펼쳐진 수백㎥의 바다모래, 손님들의 편의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하게 꾸려진 려관, 산뜻한 색갈의 외장재로 면모를 새롭게 한 천여세대의 살림집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자기들의 고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신 어버이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충정이 안아온 소중한 창조물들이다.

경축의 환희는 그들에게 승리자의 긍지만을 안겨주지 않았다.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휘황한 포부를 새겨주었고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아갈 의지를 가다듬게 하였다.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신들메를 더욱 조여매고 련속작전을 펼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군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군당책임일군은 호소하였다.

성과에 자만하지 말자. 인민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자.

앞으로 점령하여야 할 군의 목표는 매우 높다. 태양열남새온실건설도 완공하여야 하고 기초식품공장의 설비현대화도 다그쳐야 한다. 종이공장, 음료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개건보수와 설비현대화도 짧은 기간에 끝내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일감은 방대하여도 군당일군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라선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지니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작전하고 지휘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무엇이겠는가.

들끓는 전투장들을 타고앉은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력량이 태양열남새온실건설장과 지방산업공장을 비롯한 전투장들에 전개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이 화선식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앞채를 메고 내달리는 일군들의 뒤를 따라 건설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지금 룡림땅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위훈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위원회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위원회에서 경제선동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드높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종업원들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경제선동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아침마다 진행되는 경제선동활동을 통해서도 공장의 앙양된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앙양과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공장의 경제선동을 보면 특징적인것이 있다.

공장정문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들에서도 힘있는 경제선동이 종업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는것이다.

정문에서부터 직장들에로 가는 길에 직관물들, 속보판들이 늘어선 《직관거리》도 볼만하다.

종업원들은 공장에 들어서서부터 항상 시대의 기세찬 숨결, 들끓는 현실을 그대로 호흡하면서 기대앞에 서게 된다.

인상깊은것은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모두가 경제선동대의 한성원이 되고있는것이다.

정문에서는 공장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서있는 당위원회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매 직장앞에는 또 어떠한가. 손에손에 붉은기와 북채를 틀어쥐고 종업원들을 고무해주는 직장의 당, 행정일군들의 참신한 선동활동은 또 얼마나 격동적인지 모른다.

일군들이 경제선동의 앞장에 선것이 대중에게 주는 감화력은 참으로 크다.

위훈의 발걸음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의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이곳 당조직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경제선동의 위력은 놀라운 성과를 안아오고있다. 올해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한 혁신자들이 날에날마다 배출되고있는것이다.

온 공장에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참으로 온 공장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경제선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가슴한껏 안아보게 된다.

한영철

뜻깊은 올해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으로 기관차수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청진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평천고려약공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전국의 시(구역), 군고려약공장들의 앞장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해온 평천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국해방 일흔돐,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도 련일 혁신을 일으켜 9월말현재 공업총생산액계획은 120%, 지표별계획은 100%로 다그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생산은 우리 나라 인민적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입니다.》

지배인 문순옥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내밀었다.

제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추출농축설비를 대담하게 개조한 공장의 일군들은 종전에 비해 성능이 두배나 높은 약초절단기와 제분기를 전투적으로 갖추어놓았다.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자체의 힘으로 수십m에 달하는 인발관을 새로 교체하고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웠다.

이와 함께 그들은 공장의 채약대원들의 정신력을 그 어느때보다 발동시키는 한편 세포군, 길주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방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약초확보를 위한 어렵고도 긴장한 전투를 기동성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반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계획수행에 필요한 여러t에 달하는 100여종의 약초들을 확보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려약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조건에 맞게 임철, 최련실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높이 세운 그날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조국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지난 8월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밤 12시까지는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매일 평균 200%의 실적을 냄으로써 페독산, 마가목기침단물약을 비롯한 공장의 대중약품, 상비약품 지표별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리윤희, 김태숙, 김성희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종업원들도 비록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의약품생산문제는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불꽃튀는 생산돌격전을 벌림으로써 뇌 및 심장혈관계통질병치료에 좋은 록사향과 급성 및 만성위염치료에 효과적인 소체환을 비롯하여 날을 따라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있는 40여가지의 의약품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더 좋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어났다.

최성옥, 양금선, 윤진옥동무들은 여러 단위 연구사들과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미나리금강약물간보호단물을 비롯한 여러종의 건강식품을 내놓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문순옥, 리광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한 그 기세로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일 불같은 일념에 넘쳐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범안양어장개건공사 결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범안양어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양어장에 현대적인 시설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앞선 양어방법으로 물고기생산량을 종전의 2배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지난 기간 범안양어장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는 범안양어장을 개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양어장을 더 잘 꾸리고 선진양어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통이 큰 계획을 세웠다.

도당책임일군은 양어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범안양어장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건설력량으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개건전투를 시작하였다.

리성철동무를 비롯한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개건공사의 앞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자재보장사업을 따라세웠다. 리종일, 전명철동무들을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이 공사참가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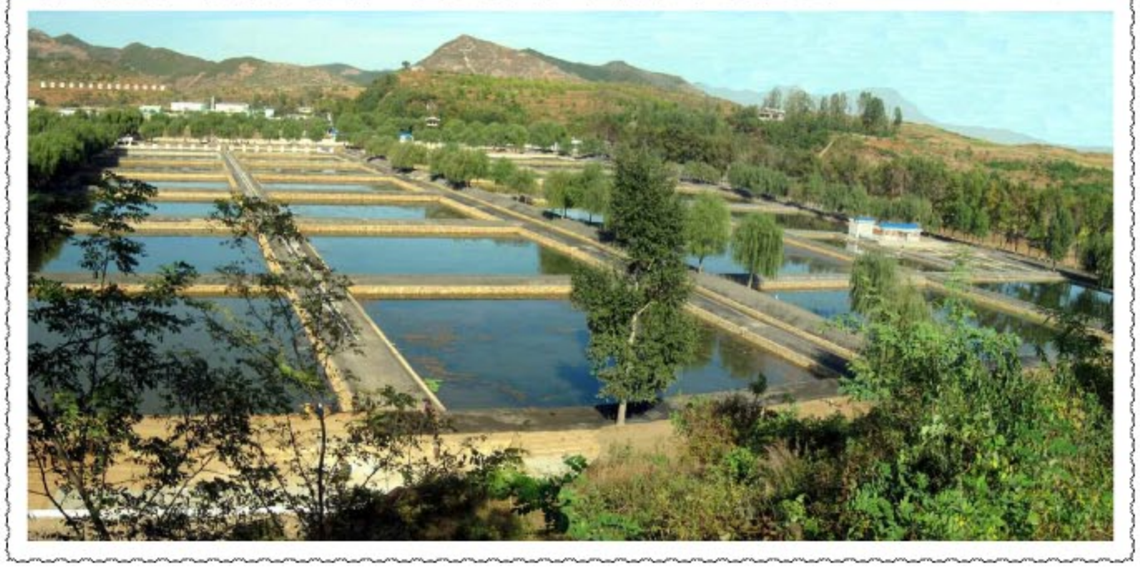
서흥군의 책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여 10여동의 새 건물건설과 낡은 건물에 대한 개건보수공사, 양어장바닥파기와 뚝쌓기 등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해제꼈다.

도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이 청춘의 열정을 안고 제일 어렵고 힘든 공사대상들을 맡아 수행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양어장개건공사는 당창건 일흔돐을 계기로 완공되였다.

새로 개건된 범안양어장은 못들의 수질분석, 산소보충, 먹이공급 등을 콤퓨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자동조종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설비들에 태양빛전지를 설치하여 자연에네르기를 최대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못마다에 독립적인 배수체계가 세워져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도 물고기병을 철저히 예방할수 있게 되여있다. 그리하여 로력과 물, 먹이를 극력 절약하면서 물고기생산을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친정어머니는 늘 곁에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가득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은가.

친절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며 친혈육같은 동지들과 보건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다심한 부모같은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정평땅의 한 녀성이 보내온 편지에 깃든 사연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정평군 읍 225인민반에서 사는 채종실녀성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정평군 독산농장 제1작업반에 세간난 우리 딸네 집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우리 딸이 11년만에 다섯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작업반당조직에서는 이 어머니가 가보기도 전에 산모를 찾아가 따뜻이 보살펴주었습니다. 미역과 쌀은 물론이고 애기옷과 포단까지 정성껏 마련해가지고와서 몸을 빨리 추세우고 아기도 잘 키우라고 따뜻한 정을 부어주는 작업반초급일군들앞에서 우리 딸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봄철에 들어서면서는 씨뿌리기준비로 바쁜 속에서도 온 작업반이 달라붙어 집을 번듯하게 보수해주고 터밭에 심을 남새종자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작업반당조직만이 아니라 농장초급당일군들도 친부모의 정을 기울였습니다. 새 학년도를 앞두고 네 아이의 옷과 학용품들을 일식으로 준비해준 초급당비서동지는 학교선생님들을 일일이 만나 앞으로 이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정형에 대해서 자기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과업을 주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당조직의 손길에서 친정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고 우리 딸은 때없이 외우군합니다. …》

딸의 심정을 담아, 사위의 심정을 담아 어머니 우리 당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싶은 심정이라는 정평땅의 나이많은 녀성의 편지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당의 품,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복받은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는 무수한 친정어머니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좌우명으로 여기고 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이런 일군들을 바로 우리 당이 키웠다.

본사기자 김향란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아들딸들이다

세쌍둥이들의 출생과 더불어 꽃펴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펼치고

아마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고 그 품을 우리 집이라 노래하는 우리 인민의 인생철리를 다는 알수 없을것이다.

어머니당, 그것은 당창건과 함께 새롭게 태여난 우리 인민이 70돐기의 년륜속에 대를 이으며 체험해온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스스럼없이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랴.

그 부름과 더불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꽃펴났던가.

영광의 10월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지난 8월 13일 평양산원에서는 455번째로 세쌍둥이가 태여나 고고성을 울리였다.

태여나면서부터 축복의 요람에 실려 온 나라의 경사로 떠받들리우고있는 이 나라의 복받은 세쌍둥이들.

우리는 그들의 복된 삶을 놓고도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을 뜨겁게 안아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였던가, 이 땅에 사랑의 새 력사가 꽃펴난것이.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수령님 베풀어주신 은정이 가슴을 울린다.

주체36(1947)년 7월 어느날이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정규무력건설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마저 잊고 사업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강동군 승호면(당시)에서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시던 문건들을 밀어놓으시고 세쌍둥이가 출생하였다고 하는데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이번에 출생한 세쌍둥이가 잘 자라서 나라의 동량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며 세쌍둥이를 잘 키우고 산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먼 옛날도 아닌 두해전이라면 나라가 없는탓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세쌍둥이와 산모였다. 이런 세쌍둥이와 산모에게 의사와 간호원을 붙여주도록 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세쌍둥이의 양육에 필요한 영양제와 옷과 포단까지 보장해주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세쌍둥이가 출생하면 아이들과 산모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세쌍둥이를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키워주는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근 70년간 수많은 세쌍둥이들이 당의 커다란 관심과 뜨거운 사랑속에 태여나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받아안으며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났다.

아이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을 보시는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함주군의 세쌍둥이가 안겼고 어느해 설맞이모임때에는 43쌍의 어린 세쌍둥이들이 모두 안기였었다.

다 자라 조국을 지켜선 군복입은 세쌍둥이들이 대견하다시며 너희들은 당의 젖줄기를 빨며 자란 당의 아들딸들이라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세쌍둥이들이 받아안은 은정은 또 얼마였던가.

평양산원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평양산원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산원에 놓을 보육기의 대수를 적게 예견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안타까운 심정에 휩싸여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아직 아이들을 위한 일에 돈을 아껴본적이 없다고 하시며 산원설비는 필요한것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돈을 계산해도 된다고 간곡하게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에서 출생하는 조산아들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방에서 태여난 위급한 조산아들과 세쌍둥이들도 다 데려다가 보육기안에서 키우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 땅에서 태여나는 새 생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받아안는 일군들의 격정은 참으로 컸다. 그리하여 몇대로 예견했던 평양산원의 보육기는 그후 수십대로 늘어나게 되였다.

평양산원에 황홀한 보석꽃주단도 펼쳐주시고 최신식의료기구와 설비들, 귀한 의약품과 보약재들도 끊임없이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은 그대로 세쌍둥이들의 생명의 젖줄기로 되였다.

그 사랑에 받들려 개원하여 두달이 가까와오던 주체69(1980)년 9월 25일 평양산원에서는 첫 세쌍둥이가 출생하여 고고성을 터치였고 그로부터 네해후 당창건 39돐을 앞둔 10월 2일에는 첫 네쌍둥이가 만사람의 축복속에 태여나온 나라를 기쁘게 하였다.

세쌍둥이가 태여나면 강력한 의료진도 보내주시고 특별비행기도 띄워주시며 그들의 신상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께 직접 보고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절세위인의 은정을 안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아로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는 또 얼마였던가.

주체75(1986)년 4월 량강도 갑산군 조양리에서 세쌍둥이가 출생하였을 때였다.

출생한 세쌍둥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행기를 띄워 그들을 평양산원으로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날 비행기가 뜨기에는 매우 불리한 날씨였지만 사랑의 명령을 받은 해당 인민군부대에서는 평양산원의 의료진을 태우고 즉시에 비행기를 출발시키였다. 평양을 출발한 비행기는 몰아치는 태풍과 비속을 뚫고 무사히 갑산땅에 도착하였고 세쌍둥이를 태우고 다시금 평양으로 기수를 돌리게 되였다.

사랑의 보육기에 실린 세쌍둥이와 산모를 태운 비행기가 갑산땅을 박차고 창공높이 날아오르던 그 시각 격정에 넘쳐 터치는 환호성이 직승기의 시창을 흔들었다.

솟구쳐오르라, 만복의 절정으로!

진정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온 세상이 보란듯이 가장 자애롭고 따뜻한 우리 당의 손길이 행복동이들을 높이 안아올린 감격의 순간순간이 아니였던가.

그날 사랑의 비행기에 실려 평양산원으로 떠나가는 세쌍둥이를 바래우며 갑산군 인민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옛날에는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우며 한 자식을 키우기도 힘들다고 했던 북변의 갑산땅에 당의 따사로운 해빛이 그늘 한점 없이 비쳐들어 사경에 처한 세쌍둥이를 죽음에서 소생시켜준 그 사랑은 로동당시대에 꽃펴난 또 하나의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어찌 그들뿐이랴. 천만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울던 그 시각에도,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와 일촉즉발의 정세속에서도 우리의 복동이들은 변함없이 하늘길에 위대한 사랑을 아로새기며 어머니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만복의 절정으로 오르고오르지 않았던가.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량강도 김형권군 동흥리 평범한 농장원의 집에서 세쌍둥이가 태여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비행기를 눈물속에 쓸어만지며 세쌍둥이의 할아버지가 터놓은 격정이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저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라앞에 큰 죄를 지은 놈입니다.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죄많은 집의 자손을 살리자고 이렇게 큰 덕을 베풀어주시니 내 이제 열번 더 산다고 해도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수 있겠습니까.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녕 그날에 울린 격정의 목소리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모두 한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였고 인민을 위한 혜택이 그대로 당정책이 되고 인민사랑의 세계가 감동깊은 사연들을 끝없이 낳는 내 조국땅에만 펼쳐질수 있는 화폭이였다.

하기에 인디아의 한 사회학자는 이 땅의 현실앞에서 격정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심정을 터치였다.

《조선은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 인류가 수수천년 소원해온 인민이 주인된 사회이다.》

그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경에 처한 두 선원의 수술을 위하여 만리대양을 달리던 대형무역선의 항로를 자기 나라의 마드라스항으로 바꾸도록 해주신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주체83(1994)년 7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진 산골의 한 산모와 세쌍둥이를 위하여 직승기를 띄우도록 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친상을 당한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이름없는 산모와 세쌍둥이를 위하여 비행기까지 띄운 일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인간의 하늘이 아니시고서야 이런 사랑을 누가 또 베풀수 있겠는가.》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자식의 성장을 두고 마음쓰는것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 세쌍둥이들의 성장을 위해 기울이신 사랑의 세계는 천만어머니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참으로 뜨겁고 위대한것이였다.

선군장정의 길에서 세쌍둥이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사랑의 《특별보고》세계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녀성구분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나이는 몇살이고 키는 얼마인가, 고향은 어디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군사복무가 힘들지 않은가 물어도 보시고 군대에 나와 름름하게 자라난 세쌍둥이를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친부모의 정을 기울이시는 그이앞에 세 자매는 어려움도 잊고 자기들의 병사생활에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세쌍둥이병사들이 키가 좀 작은것이 걱정스러우시여 그들을 평양에 데려다 건강검진도 시키고 보약들도 보내주도록 하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세쌍둥이들이 1년에 키가 얼마씩 컸는가를 자신에게 꼭 보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체계까지 세워주시였던것이다.

진정 친부모보다 더 다심하고 따뜻한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은 이 땅 그 어디에나 아로새겨져있다.

자연의 빛과 열에는 한계가 있고 그늘진 곳이 있기마련이지만 우리 장군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외진 곳이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415번째 세쌍둥이가 태여난 기쁜 소식을 아뢰이며 평양산원의 종업원들이 올린 편지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뜻깊은 친필이 우리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동지들! 기쁜 소식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정말 동지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소식을 수령님과 장군님께 전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실것입니다. 나는 동지들이 인민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맡은 책임적인 사업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시다!

김 정 은

2012. 3. 28》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이 땅에 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이 나라 세쌍둥이들은 물론 천만군민이 사랑하며 심장으로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

사랑속에 자라며 정이 들은
당의 그 품은
내 운명 맡겨둔 이 세상 전부
이라네
아 어머니당이여 한생을 살면서
이 몸은 언제나 그대만 아네

생을 지켜주고 성장의 걸음걸음을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품, 그 품이 바로 어머니당의 품임을 실생활로 체험한 세쌍둥이들이 10월의 하늘가를 우러러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는 그렇듯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것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아들딸들이다!

신 현 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정부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2일 로씨야정부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대표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민족만대의 부강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고 조로친선관계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연회 마련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12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와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과 꾸바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중국공산당대표단 귀국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운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최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창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웰남공산당대표단 귀국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대중운동부장 하티 키엣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공산당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근팡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팜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귀국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짠씨 포씨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근팡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귀국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신홍철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대표단 도착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총리사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안드레이 클리모브를 단장으로 하는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까데미야협주단 귀국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단장 윅또르 옐리쎄예브가 인솔하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 아까데미야협주단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있는 외국손님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있는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 필리핀친선대표단,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일행,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떼구 싼또싸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할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 강렬해진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손님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룡라곱등어관 등을 참관하였다.

외국손님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 참관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청진항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0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시에라레온국적선박 《유앤-7》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수십성상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으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교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말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꿋꿋이 이어나가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로씨야정부대표단 해방탑에 화환 진정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정부대표단이 12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정부대표단 단장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전사한 쏘련군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또한 이날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대표단이 해방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조로외교관계설정 6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7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2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룡남대외경제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심국룡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씨야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과 로씨야정부대표단,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로씨야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로씨야정부대표단 도착

조로친선의 해 폐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정부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와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죠니혼 공동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대표단이 1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장 김창룡이 전송하였다.

독자의 편지

고마운 사람들을 자랑하고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한 평범한 가정을 위해 바친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지난해 여름 어느날 동대원구역 삼마2동에 있는 저의 집으로 만수대창작사 초급당비서동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가정에 식솔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나서 앞으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두해전에 우리 마을로 이사온 부모없는 4형제를 한집안식솔로 받아들였을뿐인데 이렇게 찾아와 따뜻이 고무해주니 마음속의 자그마한 시름도 다 풀리는것만 같았습니다.

그후 저의 집으로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성어린 물자를 안고 그칠새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곳 일군들은 식솔이 불어난 사정으로 저의 집이 비좁아 불편을 느낄것이라고 하면서 번듯하게 새 집을 지어줄것을 결심하고 종업원들을 발동하였습니다.

그 나날 저의 가정을 위해 바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다 적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 5월 막내인 주진이가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였을 때에는 성의껏 마련한 기념품도 안겨주면서 군사복무를 잘 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대할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고마운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게 됩니다.

선교구역련의봉사사업소 은덕원 로동자 송 련 숙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박영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이 떠나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12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길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당의 향도의 해발

자주적운명개척의 70년력사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

민족자주위업실현의 휘황한 등대로 빛을 뿌려온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오늘 온 겨레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로동당이 있어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굳건히 수호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민족모두가 안겨살 은혜로운 품으로 우러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으며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를 한껏 터치고있다.

서울대학교의 어느 한 토론회에서 울려나온 격정의 웨침을 들어보자.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준엄한 년대에 창조하신 반석같은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창건을 만방에 선포하시였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주석님에 의한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는 로동계급의 새 형의 혁명적당의 출범을 알리는 시대의 선언이였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고 알찬 결실이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서울에서 있은 지식인들의 토론회에서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혁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공은 그 어느것이나 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고 필승불패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일성주석의 력사적공적은 그분께서 높이 쌓아올리신 많은 불멸의 업적중에서도 특출한 업적이라고 할수 있다.》

한 력사학교수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은것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당의 위업이 꿋꿋이 이어져왔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은 김정일장군님의 완벽한 정치실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라고 격찬하였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민중속으로! 이것은 이북의 당과 정권의 가장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모습이며 이북식민중사회가 낳은 특유한 풍경이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중만세, 민중제일을 선언한 위대한 철학이다. 이북은 이 독특한 민중우선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그래서 로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가 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을 위한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중적당으로, 민족모두가 안겨살 어머니품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진로를 환히 밝히며 력사의 갈피에 위대한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아로새기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오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법화하시고 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하시였으며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전하면서 조선로동당의 미래는 창창하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확신하는 글들을 싣고있다.

이러한 민심을 담아 한 정치평론가는 《일심단결이라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을 이루어낸 필승불패의 당은 조선로동당뿐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김일성주석님의 력사, 김정일장군님의 력사로 영원히 흐를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어느 한 정세토론회장에서 대구의 한 재야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걸고 이북을 모해하고 압살하는데 력량을 총발동하며 땀을 뽑고있지만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북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체제의 굳건함을 시위하고있다.

그 위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북의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와 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데 있다. 이북과 같이 민중의 자주적의사를 받아들여 건설되고 령도자와 당을 중심으로 혼연일체화된 사회에는 그 어떤 압력도 통할수 없다. 이것은 미국에 철저히 얽매여 살아가는 이남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진정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신뢰와 칭송의 마음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날이 굳세여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에서 민족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이남의 근로자들이 주인되고 잘사는 민주사회의 건설이 담보된다. 이남민중이 그 품에 안길 날은 멀지 않았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남조선도처에서 울려나오는 이 격정의 웨침들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을 한없이 신뢰하면서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해나갈 남녘겨레의 굳센 의지의 반영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일심단결의 력사는 영원하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의 력사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존엄높은 모습은 남녘겨레들의 끝없는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자주연구학회의 한 회원은 《북의 안정, 그 비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북은 신비스럽다할 정도로 난관앞에서도 의연함과 강의함을 잃지 않고 극복해나가고있다. 이 생명력의 원천이 바로 이북에서 말하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일심단결이다. 다시말하여 단순한 기계적뭉침이나 산수적결합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한몸을 이루는 유기체식결합이다. 여기에서 수령은 뇌수이고 당은 중추이며 대중은 그에 의해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몸체이다.》라고 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사상과 의리, 도덕적으로 굳게 결합된 이러한 운명공동체를 깨칠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격찬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한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리여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북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라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을 가진 나라는 이북밖에 없다. 자기의 령도자를 친어버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뵈오면 뜨거운 눈물과 열렬한 환호성으로 신뢰와 존경심을 표시하는 군민을 가진 나라가 이북외에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는가. 오직 이북의 군대와 인민만이 이러한 일심단결의 화폭을 펼쳐낼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필승의 무기로 삼고 위대한 대고조력사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존엄높은 모습에 대해 소개하면서 령도자는 민중을 끝없이 사랑하고 민중은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북의 놀라운 정치현실은 동지애의 위력,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력사의 도전을 맞받아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승리만을 떨치리라는것은 남녘겨레의 드팀없는 확신이다.

안동시의 한 토론회장에서는 이런 격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하고있지만 북이 동요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같은 세련되고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된 불패의 당이 있기때문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시련이 가로막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할것이다.》

서울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과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위인들을 모심으로써 백전백승을 떨쳐온 김일성주석님의 력사,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이다. 이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의 당으로 필승불패할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렇다.

선군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있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민족의 창창한 래일이 밝아온다는것은 남녘인민들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된 진리이고 신념이다. 하기에 남녘인민들은 자기들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아 이렇게 웨치고있다.

《위대한 령수가 위대한 단결을 낳는다. 마침내 하나될 겨레여, 온 세상에 자랑하시라. 21세기의 태양이 펼치는 위대한 민족단합의 하늘아래 그대들이 산다!》

본사기자 김향미

《선군정치는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

언제인가 서울의 한 지식인은 《조선로동당은 백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는 존엄높은 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지금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북에 대한 대결과 전쟁, 고립과 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것이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침략적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가 비할바없이 강하기때문이다. 이북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변혁들, 이북민중이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것이나 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와 잇닿아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조선로동당의 필승의 무기는 선군정치》,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인 령도체계와 독특한 정치방식을 확립한 위력한 당》, 《선군정치로 만난을 헤치며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조선로동당》 등의 글들이 실려 내외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과 김정일령도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가한 한 지식인은 《조선로동당이 오늘의 복잡다단하고 엄혹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백전백승의 영웅적기상을 떨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승할것이다.》라고 웨쳐 장내를 격동시켰다고 한다.

이렇듯 남녘겨레는 조선로동당이 장장 70년동안 자기의 기록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근본비결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에서 찾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당이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지 못하고 령군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위업이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군대를 단순히 조국보위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혁명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 이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간고했던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기적같이 일어나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도 튼튼히 지켜낼수 있었다. 그리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고 6.15통일시대라는 경이적인 현실도 안아올수 있었다.

하기에 남녘겨레는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적극 공감하며 그것을 민족의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고있는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은 위대하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예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어느 한 정치평론가는 《대망의 김정일시대여 영광이 있으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현정세의 요구와 시대가 나아갈 길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당을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인 령도체계와 독특한 정치방식을 확립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5천년민족사의 긍지를 다 합친다 해도 대비할수 없는 민족의 대긍지, 겨레의 대행운》이라고 썼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김정은식선군정치로선〉이다.》, 《세계가 조선인민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그대가 누구이든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선군정치를 따르고 받들라.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영광인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등의 글들을 인터네트홈페지들에 계속 싣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기자는 자기의 글에서 《지금 이남의 뜻있는 사람들은 몸은 비록 남에 있어도 마음만은 북에 두고 산다. 그들은 북의 조선로동당이 지도리념으로 하고있는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공감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한 선군정치가 크게 성공하여 남북삼천리에 자주통일의 새봄이 올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라고 썼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백승의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계속될것이며 위대한 우리 당, 조선로동당에 대한 남녘겨레의 칭송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남녘겨레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조선로동당의 모습, 그것은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당의 모습이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고 민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어머니당》, 《민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로동당》, 《이북민중 누구나가 어머니품이라고 부르는 조선로동당》,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외세가 살판치는 땅에서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자본주의정당들만을 보아오고있는 남녘겨레들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조선로동당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희한하고 꿈만 같은것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남녘겨레는 우리 천만군민모두가 한목소리로 어머니라 부르며 열렬히 따르고 받들고있는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을 그토록 동경의 눈길로 바라보며 칭송하고있는것이다.

대구에서 사는 한 재야인사는 《이북의 현실은 어느것이나 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이 낳은 현대의 신화들이다.》고 하면서 《때문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로동당을 가장 위력한 불패의 당이라고 부르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언제인가 남조선잡지 《말》, 《신동아》도 우리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인민적시책들을 찬양하는 글들을 실어 주목을 끌었다.

우리 당에 대한 남녘겨레의 신뢰의 마음은 《국민일보》, 《통일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이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민중사랑의 정치가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찬탄한 사실을 통해서도 느낄수 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주체의 기치따라 불패의 위력을 떨쳐온 승리와 영광의 70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인민사랑의 70년이다.

우리 당을 이렇듯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해주신분은 바로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신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시다.

서울의 한 언론인이 《당의 참모습을 알려거든 이북의 조선로동당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민중을 위한 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당이 민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도록 이끄시였다.》고 열렬히 격찬한것은 남녘민심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남조선의 현대사연구원의 한 성원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걸음을 많이 걷고 밤잠도 덜 자면서 고생을 하면 민중이 보다 행복해진다고 하시며 손수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런 위대한분을 모신 당이기에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이 물먹은 담벽처럼 련이어 무너지고 련합된 제국주의의 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만난을 헤쳐가며 언제나 성공의 탑만을 쌓아 불패의 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할수 있은것이였다.》고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였다.

부산의 한 재야인사도 세상에는 조선로동당처럼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시종일관하게 민중중시의 정치를 펼치여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당은 없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을 민중의 자주적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주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지금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남녘겨레의 심금을 틀어잡고있다.

자나깨나 인민의 행복과 기쁨만을 생각하시며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선군혁명령도의 숭고한 자욱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풍모, 비범한 령도적자질은 온 겨레를 매혹시키고있다. 하기에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의 고결한 풍모에 감격을 금치 못한 남조선의 한 정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나하나의 걸음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그이처럼 뜨겁게 지닌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고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최근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령도하여오신 북의 로동당이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며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위대한 우리 당은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세계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가 6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와 산하조직일군들, 심양시에 있는 재중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가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70성상에 걸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온 력사이며 가장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고 반제투쟁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위대한 력사이며 억년 드놀지 않을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온 승리의 력사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이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고 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보고회가 끝났다.

이어 참가자들은 록화편집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감상하였다.

불레찐특간호 《자주의 별》 발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4일 불레찐특간호 《자주의 별》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불레찐은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의 주체의 당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이 다른 당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이라는것이다, 조선인민은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칭송하고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 행복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이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불레찐은 《조선로동당창건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이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라고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열병식은 세계를 놀래웠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본 외국손님들의 반향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용과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의 일심단결을 힘있게 과시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본 외국의 벗들이 격정을 금치 못하며 흥분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로씨야 연해변강 아르쫌시 시장 올라지미르 노비꼬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열병식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것이였다.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는 열병대오의 모습에서 령도자에 대한 군민의 강렬한 경모심을 느낄수 있었다.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조선의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대표단 단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받은 감격은 정말 크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지금껏 이렇듯 성대한 행사, 훌륭한 의식을 본적이 없다.

위대하신 수령들을 모시였기에 조선과 조선인민이 이처럼 위대할수 있는것이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꿀리꼬브는 뜻깊은 명절을 특색있게 장식한 조선의 열병식은 세계를 놀래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축을 울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열병대오는 볼수록 장관이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이 없이는 이러한 열병식을 할수 없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고 선군의 위력을 절감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최후승리를 확신하였다.

열병식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 굳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헨리 마씨코는 주체조선의 강력한 군력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위력을 지닌 조선인민군의 힘은 무한대하다.

당과 인민, 군대의 혼연일체를 력사에 길이 전할 감격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인 이번 열병식을 통하여 세계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야말로 단결력이 강한 군민이라는것을 다시금 알게 되였다.

로씨야정치연구 및 상담쎈터 기금 소장 안드레이 표도로브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에 제일먼저 돌입한 312호땅크의 전진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만사람을 경탄시킨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듯 규모가 크고 형식이 특색있는 열병식은 처음 본다.

조선인민군의 빛나는 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열병종대들은 선렬들의 훌륭한 투쟁전통을 영원히 계승해나갈 신념의 결의로 충만되여있었다.

오늘의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조선의 군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조선인민군의 전투력, 불패의것으로 다져진 국방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열병식주석단에 게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였다.

그이의 미소에는 열정적인 천품과 승리에 대한 신심이 어리여있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조선에 대하여 허위선전을 하고있다.

앞으로 강성번영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겠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손자 장기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무적필승의 강군,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한 장엄한 화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발걸음 쩡쩡 울리며 보무당당히 전진하는 군인들과 지축을 뒤흔드는 무쇠철갑대오들은 필승불패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개와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는 일심단결의 위력, 강력한 국력의 과시로 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창건하신 조선의 혁명무력이 천하무적의 대군으로 장성강화된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열병종대들에 답례를 보내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항일대전의 나날 일제의 백만대군을 쓸어눕히시던 빨찌산대장 김일성주석님의 영상을 그려보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크나큰 영광이다.

무적필승의 강군, 철의 열병대오에 응축되여있는 선군조선의 힘은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당의 두리에 수천만심장이 하나로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채세영의 증손자 채룡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군의 강한 전투력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위엄있고 씩씩한 열병식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여온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행로가 그대로 반영된 자랑찬 모습과 열병광장을 진감하는 힘찬 발걸음소리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거행된 열병식을 보고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을 절감하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이런 불굴의 정신력, 강한 단결력을 지닌 강철의 전투대오를 키우신 위대한 령장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당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시여

온 행성이 10월의 환희로 들끓고있다.

우리 인민만이 아닌 세계 진보적인류가 10월의 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이며 위대한 당에 대한 절대적이고 진심어린 신뢰와 흠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수십년세월 실로 거대한 견인력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가장 존엄높고 강유력한 당,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불패의 당,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당,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당, 세계혁명과 자주위업의 영원한 향도자…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례찬들이다.

세계에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당이 언제 이렇듯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닌적 있었던가. 제노라 하던 당들이 우여곡절과 좌절에 모대길 때에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갈 때에도 조선로동당만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여왔다.

우리 당이 이처럼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림없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잃지 않았기때문이다.

당이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자면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그 계승성이 훌륭히 실현되여야 한다. 혁명적당건설의 이 위대한 철의 진리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사회주의집권당안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발생한 때로부터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세계사회주의운동과 혁명발전에서는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군 하였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당안에 수정주의독소를 불어넣음으로써 사회주의나라 당들의 령도적기능을 마비시켰다.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시대의 추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계시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들고나온 《개인미신》반대소동은 결국 수령을 단순히 개인으로 보는 견해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선행리론이 제기하지 못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문제, 수령의 후계자문제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에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로동계급의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의 최고체현자이고 뇌수이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령도함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당건설리론들은 그후에도 우리 당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 훌륭한 사상적원천이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유럽의 이름있는 정치활동가도,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있는 정치조직성원들도 현시대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강령이라고 격정에 넘쳐 칭송하였다.

력사적인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원리들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그 누구도 언급한적이 없는 당사업리론들을 독창적으로 전개한 이 불후의 고전적문헌들은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 당들과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도록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기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광풍이 무섭게 휘몰아치던 1980년대말—1990년대초의 엄혹한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좌절과 침체를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참다운 주체의 혁명적당,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본태를 더욱 굳건히 고수해나가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당건설과 활동을 바로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하는 문제,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 문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 문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문제 등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에서 전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정녕 험난하고 복잡다단하였던 시련의 매 년대기마다 우리 당이 주저와 동요, 한번의 로선상탈선도 없이 곧바로 나아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은 세계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귀감으로 인류자주위업의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벽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며 탁월한 령도가 있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백전백승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박 송 영

혁명위업계승과 사회주의운명

◇ 수령의 혁명위업을 옳바로 계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수하는 과정은 한세대에 끝나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때문에 혁명의 전진과정에 혁명위업계승문제는 반드시 제기되게 된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주의위업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이 지나온 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전세대 혁명가들이 이룩한 업적을 말아먹은 결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혼란을 가져오는 후과를 초래하였다. 더우기 혁명의 배신자의 책동에 의하여 이 나라에서뿐아니라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곡절을 겪게 되였으며 지난 세기 말엽에 와서는 끝내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적사태까지 초래되게 되였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이 간고할 때나 혁명의 대가 바뀔 때 전세대 혁명가들이 이룩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지 못한다면 혁명의 배신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고 혁명위업을 말아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수령의 후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대를 이어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은 수령의 후계자가 체현해야 할 자질과 풍모의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치시였다.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 수령의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려나가고 계신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선대수령들의 혁명위업을 변함없이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격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따를수 있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신것은 조선의 더없는 행운이며 조선민족만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다.》

그렇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빛나는 계승의 전통은 이 땅우에서 영원히 이어질것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에서 필승불패의 자랑스러운 력사만을 기록할것이다.

위대한 계승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

그가 찾은 비결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로씨야련방공산당의 한 일군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았다.

생전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그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고있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던것이다.

그날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최대의 명절에도 쉬지 않으시고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는 또 하나의 감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려고 멀고 험한 전선시찰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그는 다시한번 깊이 머리숙어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닌 위대한 후계자를 수위에 모신 당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수 있다.

당지도자의 탄복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과 상봉한 그 나라 당지도자는 수령님께 이런 말씀을 올렸다.

《저는 김정일동지와 상봉하는 첫 순간부터 그이께 마음이 끌려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당과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풍모를 다 갖춘 뛰여난 정치가이십니다. 그이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의 정치, 군사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경탄할 정도로 높은 식견과 탁월한 분석력을 지니고계시며 인격도 품격도 위대합니다. …

주석동지께서는 정말 후계자를 잘 만난 행운을 지니고계십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자기의 감정을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스스럼없이 터놓았다.

고임돌

《고임돌, 평범하고 겸손한 말이지만 그속에는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습니다.》

이것은 전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깊이 감복하여 한 말이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주체사상탑, 개선문의 높이에 대해 우리 일군에게 물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듣고난 그는 《빠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비할바없이 높다. 김일성주석님의 존엄있는 권위와 일치하게 주석님의 동상도 최고의 높이에서 모시였다.》라고 경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우리모두 기념비를 받드는 고임돌이 되자고 하시며 정력적으로 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엥겔스나 쓰딸린과 같이 명망높은 후계자들도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싶다.》

림 원

절세위인을 모시여 백승떨치는 강철의 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시대와 력사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존엄높은 당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며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여올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당》, 《필승불패의 당》이라고 한결같이 칭송하면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패의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마자르준비위원회에서 10월 10일에 즈음하여 축하성명을 발표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성명에서 조선로동당의 70년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된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였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가 더욱 튼튼히 다져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꼰쓰딴띤 로따루는 올해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끝없이 흐를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도이췰란드지부 조직서기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를 해방하신 후 지체없이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그이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혁명적원칙과 사회주의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사회주의위업을 주도해나가는 힘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까프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축성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에 토대하여 해방직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시였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수령은 곧 당이고 수령의 위대성은 곧 당의 위대성이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당이 위대하다는것은 우리 당력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수십성상에 걸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로씨야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기념하는 업적토론회와 강연회, 좌담회와 영화감상회 등 각종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경축행사에서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70년간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여왔다.

세계에는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지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부비서는 조선로동당은 지난 70년간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고 격찬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렇다.

세계가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전체 인민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과 같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영원한 승리의 력사를 자랑차게 수놓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대표단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8돐, 당창건 70돐, 《ㅌ.ㄷ》결성 89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대표단이 2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적도기네민주당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가 올리는 축전을 대표단단장인 행정담당부장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8돐과 당창건 70돐, 《ㅌ.ㄷ》결성 89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70년에 달하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떨쳤다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로동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최근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들은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적도기네민주당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언급하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이 4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부총비서 하미드 레자 타라기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이란이슬람교련합당의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령도자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지난 70년간 불패의 당으로 존엄떨칠수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하시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해마다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과 북남관계에 대한 간섭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촉구한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과 조선로동당은 반제자주의 길에서 공통된 목적과 리념을 지향하고있다.

우리는 반미투쟁과 북남관계에서 조선로동당이 취하는 조치와 립장들을 지지하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과 뉴대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축하하여 먀마련맹련대성발전당대표단이 8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대표단단장인 당중앙위원회 위원 틴 틴 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먀마련맹련대성발전당의 명의로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드린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먀마련맹련대성발전당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친선관계발전의 력사를 더듬으며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의 친선관계가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시기에 두 나라 인민은 조로외교관계설정 67돐을 맞이하였다.

조로친선은 실로 깊고도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로씨야는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친선적인 린방이 되여 관계발전의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두 나라사이에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첫 협정이 체결된데 이어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였다.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호상 긴밀히 협조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조로친선관계는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공고발전하여왔다.

현시기 조로관계는 커다란 생명력을 지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밀접해지고있다.

특히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로친선의 해로 정하고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개막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다양한 래왕과 교류, 협조계획들을 실현해나가고있다.

두 나라사이에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나라 공훈국가합창단이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이 평양에서 다채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이러한 의의있는 계기들을 통해 두 나라 인민은 친선의 정을 더욱 뜨겁게 느끼고있으며 관계발전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두 나라는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지금 조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사회적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는것은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로씨야에서는 사회정치생활과 경제, 국방의 모든 령역에서 커다란 성과와 진보가 이룩되고 나라의 존엄과 리익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우리는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투쟁이 응당한 결실을 맺을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로씨야에서의 강력한 국가건설은 두 나라 인민의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삶을 마련하기 위한 위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자주와 정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있는 조로친선관계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5116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